

나라 사랑 금식기도 주간!

5월 26~30일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정오기도회' (12시)
'그리스도를 위해 투표합시다' (Vote for Christ) 캠페인도 실시

"내가 금식하며 베퇴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단 9:3).

온누리교회가 5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
지를 '나라 사랑 금식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나라와 민족, 지도자와 다음세대를 위해 금식
기도 한다. 이 기간 매일 오전 5시 30분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새벽기도
회'가, 정오(12시)에는 '정오기도회'가 열린
다.

나라 사랑 금식기도 주간 온누리교회 성도
들은 하루 한 끼 금식하고, 원하는 기도회에
참가하면 된다. 나라 사랑 금식 새벽기도회와
정오기도회에서는 대한민국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함께 부르짖는다.

'그리스도를 위해 투표합시다' (Vote for
Christ) 캠페인도 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세워지
도록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투표에 참여하
자는 캠페인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투표합시
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QR 참고) '투표 결
단 하기', '매일 기도 참여', '투표 및 기도 흥
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5월 24일(토)부터 6월 3일(화)까지 웹사이트



에 '투표를 위한 오늘의 기도문'이 올라온다.
기도문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함
께 기도하고 싶은 공동체 식구, 지인, 가족 등

에게 공유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세상 끝에 웃음꽃을 피워주세요'

5월 24~25일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행사가 '세
상 끝에 웃음꽃을 피워주세요'를 주제로
열린다. 5월 24일(토)과 25일(일) 온누리교
회 모든 예배에서 나눠주는 정기후원 약정
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NGO 더멋진세
상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관련 기
사 4면>.

NGO 더멋진세상은 2010년 설립된 국제
개발 NGO다. 하나의 마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더멋진마을조성사업'과 긴급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인도적지
원사업'이 대표적 사업이다. NGO 더멋진
세상 '더멋진마을조성사업'으로 전 세계
18개국 22개 마을의 이웃들이 웃음을 되찾
았다. NGO 더멋진세상은 '인도적지원사
업'으로 '경북 의성 산불', '모로코 지진'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도왔다. 난민 지원
사업도 활발하다. '우간다 난민촌 급수 시
설 설치', '레바논 난민 교육센터 운영' 등



을 하고 있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 창립 15주년 기
념 '더멋진 콘서트'와 '더멋진 사진전'이
열린다. '더멋진 콘서트'는 지난 5월 22일
(목) 오후 7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

에서 열렸다. 이정민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
고, 더멋진멤버와 크루스가 공연했다. '더
멋진 사진전'은 5월 31일(토)까지 양재온
누리교회 원형홀에서 이어진다.

문의: 02-2271-2246

2025 마리아행전 '평강의 복'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양재 사랑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평강의 복' (시 29:11)을
주제로 막 오른다. 6월 11일(수)부터 13일
(금)까지 매일 오전 10시 국내 온누리교
회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된다(11~12일
서빙고와 양재는 양재사랑홀, 캠퍼스는
각 교회 본당, 13일 양재에서 전체 연합
기도회). 마리아행전 참가자들은 밝은색
상의와 짙은색 하의를 입어야 한다.

마리아행전 '평강의 복'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 이훈 목사, 정갑신 목사가 메시
지를 전한다. 참가신청은 각 캠퍼스 로비
에 있는 안내데스크나 목회행정실에
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667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5)

2025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5)가
5월 26일(월)과 27일(화)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 컨벤션 센터에서 '교회여, AI
로 미래를 준비하라'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2025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에서는
급변하는 AI 시대에 교회가 나아갈 방향
을 제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기독 OTT '풍당' 홈페이지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0만 원. 온누리
교회 성도와 CGN 후원자
는 참가비 50%를 할인해
준다. 문의: 02-3275-9372



법조인맞춤전도집회 'Justice For You'

법조인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Justice
For You'가 열린다. 6월 16일(월) 오후 6
시 45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
행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
지나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된 홍보부스
에서 하면 된다. 신청서에 초대 대상자인
법조인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요청자기도모임'을 5월 26일(월)과 6
월 2일(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
교회 두란노홀에서 한다.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저스티스포유'

6월부터 도곡교육관 예배, 양재온누리교회에서 드린다!

6월부터 숙명여고 강당 및 도곡교육관
레노베이션 공사로 도곡교육관 주일 성
인예배 및 차세대예배를 양재온누리교
회에서 드린다. 공사는 6월 1일부터 약 5
개월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예
배 시간 및 장소는 8면에서 확인하면 된
다<관련기사 8면>. 문의: 02-570-7443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 결론에 이르는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완성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하나씩 이 땅 가운데 쏟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재앙이 임합니다.

찬양 가운데 준비되는 심판

일곱 대접 재앙은 첫째, ‘찬양 가운데 준비되는 심판’입니다(계 15:3~4).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높이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의롭고, 경이로운 지, 그 방법이 얼마나 공평하고 진실한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찬양은 원수와 사단, 악한 세상의 모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프로 연주한다는 것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 진행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부당하거나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 요한이 하늘에 있는 성전, 곧 광야 시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던 증거의 장막이 활짝 열리는 것을 봅니다. 증거의 장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돌판, 십계명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더 넓게 보면 율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증거의 장막이 열려졌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십계명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성전에는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속에서 일곱 천사를 봅니다(6~7

절).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누구도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정하고 의롭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준비되는 이 엄숙한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이 세상을 파괴하는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죄인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세상에 대해서는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준비 과정에서 그 어떤 환란과 핍박 가운데도 변함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통해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심판의 엄중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쏟아지는 일곱 재앙

이 준비 과정이 끝나고 둘째, ‘쏟아지는 일곱 재앙’이 진행됩니다(1~2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곱 대접을 들은 일곱 천사가 한 대접씩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심판의 재앙을 쏟기 시작합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간략하게 보면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고통스러운 악성 종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은 넓고 푸르던 바다가 갑자기 피처럼 붉게 변하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세 번째 대접은 생명의 근원인 강과 샘들이 순식간에 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핍박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고, 심판입니다. 네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는 태양이 맹렬한 불덩어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에 고통을 당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짐승의 왕자,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에 어둠이 임하고,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허를 깨물어 몸부림칩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큰 강 유프라테스가 완전히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서쪽으로 진격할 길이 열리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개구리처럼 더럽고 추악한 새의 영이 나

큰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요한계시록 15:5~16:7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지만,
예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두려움과 고통입니다.”

타나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이 쏟아졌을 때 “다 끝났다”는 큰 음성과 함께 전례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1달란트, 34kg나 되는 엄청난 무게의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환란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받는 내용입니다. 일곱 나팔이 경고의 의미가 있다면, 일곱 대접은 실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됩니다. 일곱 대접 재앙의 심판은 모든 심판을 완결하는 최종적이고,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악한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 세상도 하나님 앞에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은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징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미리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곱 대접 가운데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서쪽으로 진군해 오는데, 그 혼란 속에서도 악한 세력인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처럼 더럽고 추악한 세 영이 나타나 많은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그들이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전쟁터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아마겟돈은 세상의 권력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단을 따랐던 악한 세력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합니다(19~20절). 결국 큰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의 심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깨어있는 삶

셋째, ‘인간의 완악함과 깨어있는 삶’에 대해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에 쏟아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계 16:9).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시련이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앞드리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찾게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이 내릴 때 도리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모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롬 1:28).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내리는 채찍은 은혜입니다.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진노의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거부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완악함으로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영원한 형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로 악하고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이 구별되기를 권면하십니다. 분명히 주의 마지막 재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복을 굳게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상한 큰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최종적인 완결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두렵고 떨리지만, 그 심판은 공의롭고 거룩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지만, 예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두려움과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그분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심판 과정은 단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초청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굳게 붙잡고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온누리세계관학교 특집

하나님은 진화의 방식을 사용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생명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과학과 신학의 접점에서 첨예하게 전개됐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세계관이 자리한다. 창조론은 성경 〈창세기〉에 나타난 계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창조주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주와 생명체를 창조하셨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화론은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며, 우주와 생명체가 오랜 시간에 걸친 점진적인 변화와 우연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 두 이론의 핵심 쟁점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여부다. 성경적 창조론자들은 진화론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기반한 주장으로 성경의 진리를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반면 진화론자들은 진화가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이며, 초월적 창조에 대한 성경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신화적 설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단순한 과학적 견해 차이를 넘어 세계관과 신앙의 기초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어서 날카로운 대립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대립 구도 속에서 신학과 과학, 혹은 창조와 진화를 상보적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이 기독교 진영 내에서 등장했다. 바로 ‘유신 진화론’이다.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이 진화라는 자연적 과정을 통해 우주와 생명체를 창조하셨다고 보며 무신론적 진화론과 달리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한다. 이들은 성경의 메시지와 과학적 발견이 본질적으로 충돌하

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은 교회가 과학을 무조건 거부하는 비이성적 집단으로 여겨지는 위험을 줄이고,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적이며, 지성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유신진화론은 진화를 전면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진화 자체를 부정하는 성경적 창조론자들과 여전히 근본적인 대립을 피할 수 없다.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의 쟁점이 주로 창조주 존재 여부에 있다면, 창조론과 유신진화론의 핵심 쟁점은 진화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인가, 그 과정을 하나님의 계획안에 포함할 수 있는가에 있다.

‘현생 인류가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했다’는 진화론의 주장을 현대 과학이 실제로 증명할 수 있을까? 현대 과학이 이 주장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정밀한 작업은 원숭이와 인간의 DNA 염기서열을 분석해서 유사성을 비교하고, 공통 조상의 존재를 추론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오늘날 과학기술로는 한 생명체가 장시간에 걸쳐 다른 종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실험적으로 입증하는 게 불가능하다. 유사 사례로, 약 3만 년 전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네안데르탈인의 DNA 염기서열 분석 결과가 2010년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Science〉에 발표되었다. 당시 연구에 따르면, 현생 인류 간의 DNA는 약 0.1% 차이를 보이지만,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과는 약 0.3%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일부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는 아니지만, 매우 유사한 종으로 간주하고, 인류 진화를 지지하는 획기적인 증거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는 현생 인류 간에도 DNA 차이가 0.6% 이상 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의 차이도 기존 주장만큼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닐 수 있음이 제기되었다. 또한 2001년 〈Nature〉에 발표된 연구는 시베리아의 버들솔새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울음소리를 내며 교배하지 않아 점진적인 종 분화가 일어났다고 보도했는데, 2014년 동일 연구팀은 두 집단이 실제로 교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존 주장을 철회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확증된 사실이기보다 관찰된 현상들을 진화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해석하려는 시도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만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생명체의 기원은 ‘우연한 발생’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결국 진화론이 순수한 과학적 탐구의 산물이라기보다 초월적 개입을 배제하는 자연주의적 철학에 기반한 해석임을 드러낸다. 이는 진화론이 단순한 과학 이론을 넘어 현대 과학계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적 신념체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신진화론은 과학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진화론을 수용함으로써 아담과 원죄에 대한 전통적인 성경 해석과 본질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성경은 아담을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으로 소개하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동물과 본질적으

로 구별된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유신진화론은 아담을 동물에서 진화한 인간 집단 중 하나님과 처음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은 대표 인물로 해석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아담 이전에도 유사한 인류가 존재했으며, 이들은 진화의 과정에서 죄와 무관하게 죽음을 경험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성경의 가르침(롬 5:12)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 결과, 아담과 원죄, 그리고 구속을 통한 복음의 핵심 교리가 본래 의미와 다르게 상징적 혹은 비유적 해석으로 전환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유신진화론은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조화를 시도하지만, 오히려 양측과 충돌을 야기한다. 무신진화론의 핵심 전제인 ‘초월적 개입의 부재’와 모순되고, 동시에 성경의 핵심 교리에도 조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성경적 창조론은 성경을 말씀 그대로 일관되게 해석함으로써 복음의 핵심 교리를 변형 없이 보존한다. 또한 과학적으로도 진화론이 내포한 불확실성과 가정적 한계를 지적하고, 생명의 기원을 설계자의 의도로 설명함으로써 유신진화론보다 일관된 신앙적, 과학적 세계관을 제시한다.



하주현 장로
(이춘공동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창조과학회장)

특별기고

교회의 차선은 전 우주이다

최근 한 교파 지도자가 이 시대 문화적 순간의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차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문화 전쟁’은 흑독했고, 교회는 일차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소명이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에 관한 가장 좋은 전략은 대립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생각에는 확실히 진실이 있다. 정치는 형편없는 세계관을 만든다. 인생의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더 나은 대답을 줄 수 없는 문화에서 정치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인간의 가치에서부터 진리의 원천,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기 위해 해야 하는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아닌 정치적인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능력과 교환된다.

하지만 교회에게 “차선에 머무르고 정치에서 물러서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이 도

움이 되지 않는 대답이다. 전형적으로 “차선을 유지하라”는 명령은 낙태, 결혼과 가족, 종교의 자유와 같은 인기 없는 문제에만 적용된다. 아무도 교회에 성매매에 대해 싸우는 것을 멈추라고 하거나, 깨끗한 물이 없는 사회를 위해 우물을 파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거나, 가난한 나라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복음이 뜻하는 바가 이런 일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대의를 절대적으로 행하는 것이지 문화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여겨 행하는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빛나는 순간들은 종종 지배적인 문화적 신념, 관행들과 충돌했다. 로마 세계는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기르고, 검투사 경기에 반대할 기독교인들이 필요했다. 정확히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하라’는 문화적 압력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대의에는 관여하면서 인기 없는 대의에 대해서는 차선을 유지한다면, 용기와 진실성이라는 시험에서 실패

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의 승인을 받는 것을 더 사랑하고, 선하고 진실한 것을 실천하기보다 교회의 좌석을 채우는 것을 원하는 모습이다.

모든 법과 국가의 행동은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인간의 가치, 성의 본질과 목적,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국가의 범위, 수백만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한 결과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정치는 세계관에서 가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운영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세계관으로 운영될 것이냐의 문제이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차선’에 참여해야 한다.

교회에 ‘차선을 유지하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애초에 기독교의 차선이 정확히 무엇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네덜란드의 정치인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인간 존재의 전체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뼘도 없다”고 했다. 교회의 머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의 차선은 우주 전체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명확하다. 기독교 음악가들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연주해야 한다. 기독교 제빵사들은 하나님이 한 조각 잡수실 것처럼 빵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국가 기독교 시민들은 겸손과 지혜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계신 것처럼 영향을 주고 다스리며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기 없는 일일지라도 이웃의 안녕을 위해 싸운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느냐가 아니다. 정치에 잘 참여하느냐의 문제이다. 우리는 신정체제 국가에서 살고 있지 않으며, 목사들도 정책 입안자가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차선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명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 존 스톤스트리스, 케이시 리먼더

원문: breakpoint(20221021)

2. 더멋진 선교 모델 'CHE' (Community Health Evangelism)

기분 좋은 만남 그리고 변화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상상도 못 한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5월 24일(토)과 25일(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열리는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이번에는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하는 지구촌 이웃들의 기분 좋은 만남 그리고 변화를 소개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NGO 더멋진세상을 만난 지구촌 이웃들의 그 아름다운 고백에는 빠지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성장 그리고 변화'가 그것이다.

"NGO 더멋진세상 덕분에 선진 농업 기술과 재정 관리 전략을 배웠습니다. 그 기술이 우리를 살리고 성장하게 하고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고,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자립'입니다. 개인의 자신감 향상부터 공동체의 단결까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한둘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공동체가 온전히 자립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지구촌 이웃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끈 중심에 NGO 더멋진세상의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이



ECD센터에서 태블릿 교육을 듣는 아이들(왼쪽), 태풍 피해를 입은 마을에서 진행한 긴급구호 사역(오른쪽).



있다. 그만큼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이 풍성한 열매를 가져왔다. 굶주림과 질병의 늪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달라졌다. 생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삶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성숙을 경험하고 있다.

더멋진마을, 더 멋진 미래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환경과 인식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온전히 자립하도록 돕는 게 목적이자 목표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속 가능한 변화,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게 비전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다.

지구촌 이웃들의 성장과 변화를 만든 NGO 더멋진세상의 선교 모델은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다. 통합적이면서 현지인에 의한 배가(倍加)를 지향하는 '개발선교 모델'이다. CHE 선교 모델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립을 위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돕는 게 NGO 더멋진세상의 핵심 가치이다.

NGO 더멋진세상 말라위 지부에서는 'Bright Future ECD센터'를 설립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도 만들었다. 주민을 대상으로 CHE 교육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마을의 주요 안건을 주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했다. 말라위 ECD 교육위원회 대표 제프리 커스텀(Geoffrey Custom)은 CHE 교육의 유익을 이렇게 설명했다.

"장기적인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동체 협력의 중요

성도 배웠습니다. 공동체의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도와준 NGO 더멋진세상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NGO 더멋진세상의 섬김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물한다. 어느 봉사자의 고백이다.

"M국은 심각한 경제난과 사막화 등으로 구걸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빈민촌에는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삶이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난생처음 위생과 영양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겼고, 아이들을 돌보려는 모두의 노력이 곳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건강해진 아이들이 함박웃음을 지으며 인사할 때마다 그 아이들이 만들어갈 더 멋진 미래를 상상합니다. NGO 더멋진세상을 섬기며 얻은 가장 큰 보람입니다."

사역칼럼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석열 선교사
(NGO 더멋진세상 말라위 지부장)

2018년 9월,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 말라위 포스트 마쉴라니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 리더들에게 10년 뒤에 이 마을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지, 변화된 마을의 모습을 지도로 그려보도록 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당시 그들이 그렸던 마을 지도가 조금씩 완성되고 있다.

우리가 섬기는 포스트 마쉴라니 마을은 말라위 지역 정부나 국제단체의 지원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외진 시골이다. 지역 정부의 개발 약속이 계속 무산되거나 지원이 연기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외부인을 신뢰하지 않았다. 우리

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2019년 2월, 말라위 전역을 강타한 큰 태풍으로 포스트 마쉴라니 마을도 큰 피해가 있었다. 가족 수십 채가 무너지고, 영유아들을 돌보는 공간도 유실됐다. 그때 마을 리더들이 NGO 더멋진세상에 유치원 건축을 부탁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마을 주민들이 먼저 그리고 함께 해야 도울 수 있다"고 밝히고,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유치원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알렸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마을이었기에 그들은 '자원'이라는 말 자체를 생소하게 받아들였다. 우리는 주변 강에서 길어오는 물과 모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원임을 알려줬다. 그 말을 듣고는 생기가 없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우여곡절을 끝에 예상 기간의 두 배나 걸려 유치원을 완공했다. 그때의 기쁨과 희열은 이

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마을 주민들과 NGO 더멋진세상 모두 같은 마음이다. 마을 주민들은 그 유치원을 '치콘디('사랑'이라는 뜻)'라 명명했다.

어느 날, 치콘디 유치원 학부모들이 우리에게 봉사하는 아주머니들의 교육을 요청해 왔다. 교사와 아이들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주민들이 NGO 더멋진세상에 다시 문을 두드린 것이다. NGO 더멋진세상에서 교사들의 외부 교육 기관 훈련비를 지원해 주면, 학부모들은 재정을 모아 교사들의 왕복 교통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치원 건축 경험을 통해 지역 사회의 필요성과 자원을 동시에 찾을 수 있게 된 주민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는 'CHE(지역사회 개발선교)'를 통해 '마을 내 영육의 통합적인 필요'를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때로는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지하지 않도록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

2022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국제협력단에 기금 사업을 신청했고, 이를 통해 영유아발달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Bright Future ECD 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에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교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ECD센터는 명실상부 지역 사회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우리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는 길이 훨씬 값지고, 의미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길이 되어서 지역 사회가 변하고, 이 변화가 주변 마을, 더 나아가 말라위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기도한다.

국제 의료 플랫폼 NGO ‘메디엑세스’ 창립

마침내 의료선교의 새길 열다!

한계를 넘어, 필요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의료선교



이학일 장로
(NGO 메디엑세스 이사)

2006년 11월, 우리 부부는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앙 여정을 걷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07년부터는 간호사인 아내 김지혜 권사와 함께 조선족과 한족이 함께 예배드리

는 ‘한중사랑교회’에서 매월 두 차례씩 개인적인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작은 순종을 드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 CMN(Christian Medical Network)에 소속되어 더 큰 사역을 하도록 지경을 넓혀주셨다. 2008년 조선족 동포 의료사역에 CMN 8개 현장사역팀의 하나인 ‘토브팀’이 합류했다. 한중사랑교회를 중심으로 의료봉사를 더욱 본격적으로 이어갔다.

국내 이주민 사역 외에도 CMN 토브팀, 라파팀 등과 함께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케냐, 몽골, 러시아, 레바논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매년 한 차례씩 해외 단기선교 사역에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의료 봉사에도 꾸준히 동참했다. 이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의료 행위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선포의 통로임을 깨달았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과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의 작은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나아가기로 결단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

NGO ‘메디엑세스’ 설립 이유

언제까지나 은혜롭고 행복하게 이어질 줄 알았던 의료선교사역이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에 부딪혔다. 의료선교사역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꾸준하고 열심히 사역을 이어왔지만, 새롭게 참여하는 의료인, 특히 젊은 의료인의 수가 점차 정체되었다. 의료봉사 인력이 갈수록 고령화되었고, 국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로 인해 사역지가 점차 감소했다. 해외 의료봉사는 출입국 과정에서 의약품과 의료 장비의 통관 문제 등으로 난감한 상황을 자주 마주했고, 의료행위에 대한 각국의 통제와 제재 증가로 의료선교사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생겼다. 이러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의료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게 했고, 절박한 마음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CMN 봉사자들이 NGO를 통한 사역 가능성을 타진했다.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여러 차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 CMN이 의료봉사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나를 통해 고통의 큰 고비를 넘기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느끼는 강렬한 경험이다.
하나님 사랑 실천하고, 경험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함께하자!”

례 논의를 거쳐 NGO ‘메디엑세스(MediAccess)’ 설립을 추진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모든 일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소중했다. 이번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한 적도 없었던 것 같다.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수많은 질문이 던져지는 길이었다. 하나씩 절차를 밟아나가고,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다 보니 어느새 NGO 허가가 났고,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한숨 돌리고 보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이제 시작이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끈 문제들은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계획과 의지로 이 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7).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NGO 메디엑세스는 인종, 종교, 국경, 정치적 이념의 경계를 초월해 의료가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NGO 메디엑세스 설립 취지와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보건 의료 플랫폼으로서 모든 관련 체계를 연결하고, 소통을 촉진하며, 열방

에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의료선교가 선교지에서 선교 대상인 이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매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면, NGO 메디엑세스는 지구촌 곳곳에서 실질적인 의료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대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이다. 전문 의료인력과 지원 인력을 모집하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파견해 진료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핵심은 단순한 진료를 넘어서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고 현지 필요에 맞춘 대응을 하는 것이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마 25:35).

그동안의 의료선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앞설 때도 있었지만, NGO 메디엑세스를 통한 사역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것이 의료 NGO로서의 전문성이다. 더 나아가 지역에 보건과 의료 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일회성으로 잠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계속 이어가도록 도울 것이다. 더불어 현지 선교사를 통해 지역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의료선교가 더욱 효과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지 선교사들은 해당 지역

문화와 필요를 가장 잘 이해하는 NGO 메디엑세스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NGO 메디엑세스는 세계 여러 나라 선교사 및 선교 단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의료사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선교사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해 의료 교육 프로그램, 보건 시스템 구축, 예방 의학 캠페인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각 선교지가 직면한 보건 문제를 조사하고, 그 지역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의료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이다. 여름 아웃리치 시즌에만 이루어지는 보건 의료 활동이 아니라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현지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활동을 선교사와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선교의 미래

사랑하는 의료인, 그리고 의료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께 NGO 메디엑세스와 협력을 권한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정성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사명을 인식하고, 힘을 모으기를 소망한다. 의료를 통하여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이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에 응답하기를 권면한다.

젊은 의료인들이 온누리교회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MN 사역에 동참하는 수가 정체되어 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한 의료선교의 한계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의료선교사역의 미래를 위해 NGO를 선택했고, 이제 틀을 겨우 갖추었다.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 NGO를 통한 의료선교사역이 하나님 뜻대로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료인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의료선교를 위해 NGO 메디엑세스라는 부대를 새로 마련했다. ‘의료’라는 도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이 여정에 더 많은 동역자를 초청한다. 나를 통해 고통의 큰 고비를 넘기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느끼는 강렬한 경험이다. 그 경험이 끈이 되어 우리를 매고 있기에 의료선교의 자리를 도저히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동시에 경험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의료인이든, 비의료인이든 복음의 도구로써 열방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 25:21).

1. 두란노아버지학교가 걸어온 30년 2. 두란노아버지학교가 걸어갈 30년

새로운 꿈! 또 한 번의 비상!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자의 어린 시절, 따뜻하게 기억되는 순간이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 받은 손편지가 그것이다. 그 편지는 아버지가 두란노 아버지학교에 참가하며 보낸 것이었다. 익숙지 않은 필체로 꺾꺾 눌러쓴 “사랑한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고백이 지금도 깊은 울림을 준다. 그 기억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담긴 감정의 뿌리가 됐다.

지난 30년, 수많은 아버지의 삶을 변화시켰고, 가정의 회복을 이끌었던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새로운 꿈, 또 한 번의 비상을 꿈꾼다. 한 세기 동안 이어진 눈부신 활약 덕분에 수많은 아버지와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아버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4대 두란노아버지학교 이사장 최성완 장로에게 두란노아버지학교가 걸어갈 30년에 대해 들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최성완 이사장도 두란노아버지학교 출신이다. 1999년 두란노아버지학교 과정을 수료하고 스태프로 헌신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란노아버지학교와 함께했다. 최 이사장은 두란노아버지학교가 30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두란노아버지학교처럼 역동성 있게 이어진 프로그램이 흔치 않습니다. 그것도 30년이나 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두란노아버지학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꿈과 비전, 사명을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제시하고, 그 기준 회복을 돕는다!

최 이사장은 두란노아버지학교가 걸어갈 30년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비전이 토대라고 했다. 그 토대에서 이 시대 아버지들의 자화상을 분석하고, 그들을 위한 맞춤형 접근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이 다음과 같이 이 시대 아버지들의 자화상을 이야기하면서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가정마다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과거 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권위는 낮아지고, 역할만 비대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 아버지들의 자화상이자 그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시대의 변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진리와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모든 기준이 상대적으로 바뀌면서 질서가 무너지고, 아버지의 자리마저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더 큰 책임과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생존 경쟁에서 버텨내야 하고,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로 기능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고,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란노아버지학교의 역할은 분명하다. 시대적 과제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회복하게 돕는 것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고, 방향보다 중요한 게 기준입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근거해서 아버지의 역할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경적 기준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지난 30년 동안 걸어온 발걸음이자 앞으로 걸어갈 30년 동안 감당할 역할입니다. 시대와 문화는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 이사장은 무엇보다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란 점을 강조했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를 다시 정의하고 세우며, 가정을 회복하도록 돕는 공동체가 두란노아버지학교의 본질이라고 했다.

“누구나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아직 잘 몰라서 실수할 뿐입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그 실수도, 부족함도 함께 나누며, 바로잡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버지와 가정, 세상을 향한 목소리

두란노아버지학교의 백미는 수료식이다. 아버지들이 ‘순결선언문’을 낭독하며 환경과 정직, 법규 등 삶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서약한다. 단순한 개인의 성장을 넘어 다음세대와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실천적 다짐이다.

“과거에는 회개를 촉구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아버지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 이사장은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앞으로는 아버지와 가정, 세상을 향해 건강한 목소리를 더 높일 거라고 강조했다.

“두란노아버지학교에서 회복을 경험한 아버지의 영향이 자녀 세대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놀라운 효과를 세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더 건강한 아버지, 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가 교단과 종교를 뛰어넘어 하나의 ‘운동(Movement)’으로 자리 잡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아버지와 가정, 세상을 향해 목소리 높일 것입니다.”

전 세계 아버지들의 연합과 나눔
‘파더 블레싱(Father Blessing)’

두란노아버지학교의 새로운 꿈, 또 한 번의 비상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그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오는 8월 30일(토)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열리는 ‘파더 블레싱(Father Blessing)’이다. 이 대회에는 전 세계 두란노아버지학교 스태프들과 헌신자들이 참가한다.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 세계 아버지들의 연합과 나눔의 장(場)이 펼쳐질 예정이다. 최 이사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두란노아버지학교 사례를 들면서 왜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하는지를 알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아버지의 부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초청했습니다.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비율이 25%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근본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가정의 위기를 만들고, 가정의 위기가 청소년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가기 전에 두란노아버지학교를 경험하고, 콘텐츠를 현지에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면 사회와 국가, 세대의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와 선교사들의 협력과 동역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의 행진은 멈추지 않는다. 회복이 필요한 아버지와 가정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시대는 변해도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앞으로도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경험하도록 돕는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이 세상 모든 아버지를 위한 운동’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문의: 02-2182-9100

맛있는 말씀 해설

“...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암 8:11)

신앙생활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다. 고난을 겪는 것보다 힘든 것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다. 영적 방황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찾아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말씀을 들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동안 하나님이 내린 심판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돌아킬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하나님이 최고의 형벌을 내리시고자 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말씀의 기근’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8세기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정점을 달리는 시기였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시기를 ‘이스라엘 역사의 은 시대’, ‘이스라엘 역사의 제2의 부흥기’라

고 특징 짓는다. 정치적 발전과 국력의 증대는 곧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고, 땅의 열매는 풍성하며, 물질이 차고 넘쳤다. 그러나 이러한 부의 축적은 자연스럽게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갔다.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이 부패해갔으며, 무엇보다 영적 타락이 극심했다. <아모스> 8장 12~13절을 보면 젊은이들이 동서남북 사방을 헤매며 여호와와 말씀을 찾는다. 그러나 도저히 찾을 수 없었고, 영적인 갈증에 쓰러지고 만다. 왜 하필 청년들일까? 청년들은 민족의 미래이자 신앙의 미래다. 청년들이 영적 방황으로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다.

<아모스>에는 이스라엘의 지명이 많이 등장한다. ‘벧엘, 길갈, 사마리아, 브엘세바, 단’ 등은 대규모 성소가 있던 곳이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로서 특별한 신앙적 의미가 담긴 자리다. 많은 이들이 이 성소들을 오가며 제사 드리고, 예언을 들으며,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

그곳에 가도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신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소에는 길로만 거룩한 순례객과 정결한 제사장들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제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상이 함께 있었다. 거점 성소마다 금송아지를 두고 제사 드렸다. 열성적인 종교 순례자들은 양손 가득 제물을 가지고 왔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제물을 받아, 백성들의 욕심에 부합한 말씀만 전했다. 권력층이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에 동조했고, 물질적 축복만을 빌어주었다.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방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 성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모두 자신의 탐심을 위한 제사였다. 이에 하나님이 침묵을 선언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아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그때 끝이 났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 없이 선지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말씀의 기

근을 선언하신 것은 말씀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중요한지, 말씀이 없으면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삶과 인생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 우리가 살길은 여호와와 말씀뿐이다. 말씀에 우리 삶을 던져야 한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일생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벧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암 5:4-5)



송동주 목사
(남양주 C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 백성의 예배와 거룩한 전쟁

5월 26일~6월 1일
〈민수기〉 29:1~32:15



목상포인트 1: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인 티쉬리 월은 이스라엘의 새해 첫 달이다. 이달에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등 중요한 절기가 모여 있다. 이 절기들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규례는 어떠한지 목상하자.

▶유대력 일곱째 달 1일은 ‘나팔절’이다. 이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상번제(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 제물 외에 정해진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일곱째 달 10일은 ‘대속죄일’이다. 이날에는 자기 심령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상번제 외 정해진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다. 7일 동안 성회로 모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매일 정해진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상번제와 속죄제도 드려야 한다. 8일째는 대회를 모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팔절과 대속죄일 때와 같은 규모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서원 혹은 맹세에 신중해야 하고, 하나님께 서

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미혼 여성의 서원은 아버지에게, 기혼 여성의 서원은 남편에게 영향을 받는다.

목상포인트 2: 미디안 족속은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모세가 그의 마지막 과업인 미디안과의 전쟁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목상하자.

▶하나님이 미디안을 향해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신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총 12,000명을 택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내보낸다. 그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미디안을 치고 발람도 죽이며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 그러나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이 미디안 여자를 살려둔 일로 모세가 노한다. 모세의 명대로 남자와 아이와 사내를 아는 여자를 다 죽이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은 진영 밖에서 정결 의식을 행한 다음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 군인들은 분배된 전리품의 500분의 1을 거제로 제사장에게 주고, 회중은 받은 몫의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준다. 군대 지휘관들이 생명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기념물이 된다.

목상포인트 3: 눈앞의 유익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진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요단 동편 땅에 안주하려는 이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경고하며 설득하는지 목상하자.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머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그런데 갓과 르우벤 자손이 목축에 유리한 아셀과 길랴앗 땅을 차지하고자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한다. 모세는 그들에게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로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시켜서 심판받은 일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온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새해 첫 달에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세 절기가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하기를 힘쓰자.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 ▶서원이나 맹세에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진멸했듯, 내 안에 죄로 유혹하는 요소들을 몰아내자. ▶나의 생명을 지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자. ▶하나님 뜻보다 나의 유익이나 편리함을 앞세우는 일이 무엇인가? 반복되는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를 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A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A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셔서 A 권사님이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사랑하는 따님마저 뇌종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 권사님이 남편과 딸의 병간호를 동시에 감당하면서 생계를 위한 고된 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토록 헌신적으로 가족을 돌보시던 권사님이 최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병원에서 치매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소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 A 권사님과 그 가정이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A 권사님의 치매 진행을 최대한 늦춰주시고, 치료 과정에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남편 장로님의 당뇨 합병증과 따님의 뇌종양 치료 과정에도 하나님의 치유 광선이 임해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A 권사님 가정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적, 정서적, 영적인 도움의 손길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A 권사님과 가족들이 이 모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강동 '행복이음축제' 참가자 편지



/ 김유정 관장(경희대천호태권도)

지난 4월, 강동온누리교회에서 주최한 ‘행복이음축제’에 경희대천호태권도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태권도 시범 공연을 제안받았을 때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저희의 공연이 교회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지,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복이음축제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건강한 문화와 행복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면서 기꺼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강동온누리교회의 따뜻한 마음과 비전을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경희대천호태권도는 이번 공연에서 거짓, 이기심, 다툼, 탐욕, 우울, 두려움, 무기력, 분노 등 우리 마음에 자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송판 격파로 시각화하고, 이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단순히 송판을 깨는 것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몸과 정신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무대를 구성했습니다. 이 공연을 지켜본 모든 분께 선한

“긍정 에너지, 선한 영향력”

영향력을 선사하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아이들은 전문 시범단이 아닙니다. 태권도를 즐겁게 배우는 취미반 친구들로 구성했습니다. 생애 처음 서보는 무대이기에 연습 과정에서 기대만큼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동작을 익히고 합을 맞추는 과정에서 웃음꽃이 피기도 했지만, 때로는 힘들어하고 주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놀라운 용기와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번 공연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부정적인 마음이 조금은 사라져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경희대천호태권도의 시범 공연이 그날 축제에 참여한 모든 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역사회에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를 심어주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준 강동온누리교회에 감사합니다. 경희대천호태권도도 아이들과 함께 끊임없이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긍정 에너지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온누리 교육선교학교 수료 간증



/ 최복순 집사(울산공동체)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면서 아이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 고민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문화복지학을 전공하게 됐다. 전공 특성상 다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때 문득 ‘와 있는 선교’라는 개념이 떠올랐다. 한국에 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도 선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속으로 짧게 “하나님, 선교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드렸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양재 한국어선교학교를 만났다. 그 후 나는 웨스트민스터대학원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 석사 과정을 밟았는데, 교수님이 던진 “교육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지금도 마음에 깊이 남아 있다. 그 무렵, ‘온누리 교육선교학교’를 알게 되었고, 기독교 교육과 철학, 세계관, 선교에 대해 정리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온누리 교육선교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기쁨을 경험했다.

복된 훈련의 시간

내가 느끼던 갈망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음을 깨달았다.

이대부속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교육하는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안산 M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이 땅에 와 있는 이방인들에게 영혼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 한국어 가르치며 예수님을 만나는 장(場)을 열어주고, 그들 스스로 미래를 열도록 돕는 일이 곧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쁨임을 깊이 느꼈다.

학습 과정 중에 읽은 <타문화권 교육선교>라는 책은 선교에 대한 비전과 생각을 점검하도록 도왔다. 타문화권에서 교사와 선교사 혹은 그들을 돕는 자로 살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그리스도의 희망과 생명의 빛을 전하고자 하는 저자의 고백에 깊이 공감했다. 그 책을 읽으며 ‘나는 과연 선교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온누리 교육선교학교는 복된 훈련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서는 계기였다.

이웃사랑팀 봉사자 간증



/ 박지혜 자매(S브릿지공동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이웃에게로 더 가까이!”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면 이웃사랑팀원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 외치는 구호다.

우리가 만나는 김동숙 어르신(74세)은 결혼한 적 없고, 가족도 없다. 젊은 시절 어르신 사친을 보면 영화배우, 멋쟁이가 따로 없다. 지금은 항암, 디스크 치료를 위해 매일 많은 약을 드시고, 혼자 지팡이 짚고 병원에 다니느라 고생이 아주 많으시다. 어르신의 주요 동선은 병원과 상점, 그리고 집이다.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속이 여린 어르신은 낮가림이 심해서 방문 돌봄서비스도 거절하고 계신다.

그 어르신이 3년 넘게 찾아빈 우리에게는 마음을 여셨다. 관계가 형성되고 정이 들었다. 이번 이웃사랑팀의 ‘식사를 합시다’ 행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어르신과 교회에서 함께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감사예배와 공연을 보고 어르신이 댁에 들어가시면서 “오늘 행복했다”고 하셨다. 이번 ‘식사를 합시다’ 행사에서는 맛있게 갈비를 구워드렸다. 김치와 된장찌개가 제법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에서 맛보여 드렸다.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도 다녀왔다. 오랜만에 독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웃에게 더 가까이!

립문을 본다며 즐거워하셨다. 굵아굵아 올라서는 길에 푸르른 녹음을 누리고, 팔각정에서는 전망을 즐겼다. 청와대, 경복궁, 광화문을 지나는데 어르신이 고향은 종로이고, 아버지가 호적에 올려주는 조건으로 어머니와 부산에서 살았다고 말씀 하셨다. 훗날 이복동생이 있었고, 서울에는 언제 올라왔으며,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고, 어느 날 봤더니 호적에서 과기되어 있었다고 하셨다. ‘어르신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셨겠구나. 그래서 어르신이 독립심이 강한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품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 하셨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마음을 담아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작은 기쁨이라도 전하고 싶다. 종종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동숙 어르신과 나를 맞이하실 모습을 상상한다. “참 수고했다. 참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품에 안아주실 모습을 말이다. 예수님께 드릴 내 말, “예수님 사랑해요!”를 읊조릴 때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리고 이내 발걸음이 옮겨진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웃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료 간증



/ 이두란, 이은경 성도(성동광진공동체)

하가훈에서 강의를 듣는 중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아내와 차를 타고 가다가 연합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한 적이 있다. 부부니까 당연히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연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우리 부부는 연합이 잘 되는지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연합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의를 연합을 나타내셔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의 연합을 먼저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부부의 연합이 건강하게 잘되어야 자녀들과의 연합도 잘 되고, 가정도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던 것 같이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고, 합의하고, 같은 뜻으로 살아가는 게 연합 아닌가?

하가훈에 참가하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싶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부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바라볼까?’, ‘아내와 대립했던 문제들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라고 생

시선을 하나님께!

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면 우리 부부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을 줄이고, 더 나은 부부 관계와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내 생각과 접근이 잘못되었던 것 같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보다 우리 부부의 연합에 관심이 있으셨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했다. 하나님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오래 참으심과 배려,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겠다.

하가훈 수료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한다. 맞다! 배우는 것과 훈련하는 게 중요하지만, 배운 것과 훈련한 것은 결국 실전을 위한 연습이다. 하가훈을 수료했어도 우리 부부와 가정의 삶이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하가훈 조장님과 형제자매님과 나누며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서로의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튼튼히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장로칼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함

임현태 장로
(남양주온누리교회)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관이 무엇인가? 창조신앙과 십자가 신앙, 부활신앙, 재림 신앙으로 무장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온갖 이론과 그럴듯한 논리로 올바른 신앙관을 갖지 못하게 방해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법이 되고, ‘자결’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도덕법칙이나 현대의 지배적 법칙을 무시하며, 현실 세계를 수평적으로 인식하고, 생명과 자유를 새롭고 지배적인 인격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정의의 이데올로기가 탄생했다. 그들은 평등, 다양성, 타인 포용이라는 단어를 왜곡된 논리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섭리를 부인한다.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유훈론적 공산주의 사상,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앙 등 거짓된 사상과 신앙을 추종한다. 또한 인종, 성, 젠더, 성적지향에 맞춰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핑계로 반성경적인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올해 4월, 영국 대법원에서 유익미한 판결이 나왔다. 2010년 평등법에서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태어날 때의 생물학적인 성이 곧 그 사람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스스로 의지에 따라 성별을 변경한 트랜스젠더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판결이었다. “Women are women”(여성은 여성이다), “Men are men”(남성은 남성이다)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

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혼돈의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이재훈 위임목사님은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1인 시위 등 온몸으로 반대하고 계신다. 이는 단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장래와 다음세대의 온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도 이러한 법의 제정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행동이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다. 누구든지 국가지도자를 결정하는 나쁜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경륜을, 정직함을, 도덕성을, 국가 비전을, 또는 선호하는 정당이나 개인을 보고 판단하고 투표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시하고 반성경적 차별금지법 같은 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공표하거나 주장하는 정당이나 사람에게서는 결코 표를 줘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민감한 정치적 참여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국가 지도자로 바람직하다.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선출돼 이러한 악법을 제정한다고 할 때 그때 가서 거리로 나와 소모적인 반대 집회를 할 것인가?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드릴 때 비로소 주님의 자녀로, 참된 제자로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어둠이 아닌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세속적인 가치와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권사칼럼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사.미.고’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의 줄임말이다. 사.미.고는 비상금처럼 늘 지갑에 넣고 다니다 필요할 때 꺼내쓰면 윤활유처럼 관계를 부드럽고 깊어지게 한다.

잠잠히 나를 돌아본다. 평생 살아오면서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은 제법 인심 쓰며 넉넉히 나누었다. 그러나 “미안해”라는 말은 아끼며 살았던 것 같다. 아니 애초에 미안할 일을 만들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하다.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은 자기 기준에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미안해”라는 말은 상대에게 초점을 맞춰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미안해”라고 말할 때 자존심은 잠깐 뒷전으로 밀쳐 놓아야 한다. 상대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이해해 줘야 한다. 때로 전혀 고의적인 의도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이 상대에게는 치명타를 입히기도 한다. 그럴 때는 참으로 황당하고 난감하다. 경우에 따라 억울하기도 하다. 그러나 상처 입은 건 내가 아니라 상대이기 때문에 내 정당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 상대의 느낌을 수용하고 같은 마음이 되어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미안해”라는 말을 가장 남발하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관계는 가족이다. 타인과는 무리 없이 관계를 잘 이어가는 사람도 무장해제된 가족이라는 암초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타인과는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가족 관계가

어긋나면 그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가족 관계에서 서로에게 자주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에 가장 인색한 것이 정작 가족이다. 그러나 “미안해” 한마디에 경직되었던 관계가 풀어지고 용서가 되는 것 또한 가족이다. “미안해” 한마디면 풀어질 일을 그 말 한마디 아끼다 가정이 깨지기도 한다. 화로처럼 따뜻해야 할 가족들이 찬바람 쐬는 일으키며 넘을 수 없는 벽을 쌓고, 집에만 들어오면 입에 자물쇠 달아걸고 남보다 못한 애증의 우리에 갇혀 불행한 날들을 살기도 한다.

“미안해”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존심 줄다리기는 백해무익이다. 말 안 해도 이해하겠거니 하는 안일함도 큰 적이다. 잘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낮은 포복 자세로 꿈쳐 놓았던 ‘사.미.고’ 비상금을 풀어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안해” 한마디에 “고마워”, “사랑해”를 양쪽 날개로 부채질하면 신기하게 꺼졌던 화로에 불씨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가정 잃고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며, 나 혼자 잘 된들 무슨 영화가 있겠는가!

가족만큼 서로 잘 아는 관계가 있을까? 별것 아닌 것에 꼭지 도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맞대거리 하지 말고 잠깐 우산 펴고 비 그치기를 기다리며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비 피하다 보면 금방 해가 난다. 해 날 때 웃으며 옆구리 꼭꼭 찔러보자. 그러면 당장 해 가리는 양산 퍼주는 게 부부관계 아니던가.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가정을 지켜가는 지혜 아닐까 싶다. 가족 소중한 줄 알고, 가정이 최고인 줄 알고, 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지키는 현명함으로 지혜롭고 따스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다.

신앙에세이

유현우 전도사
(강동차세대)

나는 성경 인물 중에서 엘리야를 참 좋아한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당당히 드러낸 멋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특히 갈멜산 제단 위에 물을 흥건히 부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 있게 외치는 그의 모습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엘리야의 그 배짱과 담대함이 늘 부러웠다. 스물셋 겨울, 장로회신학대학교 학부생으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당시 내 마음속 목표는 엘리야와 같은 사역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엘리야를 닮고 싶다는 포부로 시작한 교회사역은 절대 만만치 않았다. 40명 남짓 되는 초등학생들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일, 부서의 크고 작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설교사역이 마음에 큰 부담이었다. 목회자로서의 한계와 부족함이 나를 늘 힘들게 만들었다.

5년 동안 교회학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나는 마치 광야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와 닮아있었다. 이전에 꿈꿔온 멋진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었다.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도망치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떡과 한 병의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떡과 한 병의 물을 건네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떡과 한 병의 물은 바로 ‘기도’였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다. 나는 장로회신학대학교의 낡고 오래된 기도탑에 올라가 었드렸

다. 처음엔 기도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 뒷방에 올라가 창문을 여는 흉내라도 내야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탑을 찾았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었드려 있을 때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옆방에서 기도하던 다른 신학생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었드려 신음하던 내 영혼에 기도의 불씨를 붙인 것이다. 어느새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내려온 날도 참 많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며 시간을 쌓아갈 때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도의 자리에 었드려 있었던 그 시간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엘리야가 광야 한복판에서 떡과 한 병의 물로 기운을 차렸듯이, 나 역시 기도의 자리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 기도는 나에게 분명 하나님의 떡과 한 병의 물이었다. 성령

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주셨다. 그 이후 3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교회학교 사역을 감당했다. 스물셋에 처음 만났던 초등학교생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귀한 일들이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기도의 불을 붙이셨고, 그 모든 일을 부족함 없이 감당하게 하셨다.

나는 올해 강동온누리교회 차세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 물론 이번 여정도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하나님 앞에 었드려 기도할 때 다시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힘과 능력, 소망과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 가기를 축복한다.



세상 끝에 웃음꽃을 피워주세요



창립 15주년
온누리교회NGO 더멋진세상
후원약정식 5.24~5.25

후원방법

현 장 후원약정서 작성 ➡
예배 위원 혹은 더멋진세상 부스에 제출

온라인 QR코드 스캔 후 입력
※ 경북 의성 산불 긴급구호 후원 방법

QR 코드 스캔 > 일시 후원 클릭 >

후원명 '2025 국내 산불 긴급구호' 클릭

후원안내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2-002535 (사)더멋진세상
문 의 02-2271-2246



후원신청



홈페이지